韓國保健教育學會誌 第8卷 2號(1991. 12)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Vol. 8, No. 2(1991)

妊產婦의 敎育要求度에 關한 硏究

朴春和 · 金炳晟 · 朴亨鍾 · 申海林 · 金公鉉
(仁濟大學校 保健大學院)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 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문화적 영향과 사회적변화, 기술발전, 특히 산부인과학과 모성간호학의 발전을 반영한다. 실제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는 임산부 자신의 출생시부터, 혹은 더 일찍 시작되는데, 이것은 영아기, 아동기, 사춘기와 성숙기를 통한 경험의 축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영국 맨체스터의 Charles[1]는 이미 18세기에 임신중 임산부의 관리와 분만중 그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책을 저술하였다. 미국에서도 과거 30혹은 40년 동안 출산을 위한 부모교육에 강조를 두어 왔고, 또한 출산이 정상적인 생리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산과병실이 있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산부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분만후 산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2]

이러한 임신, 분만, 산욕은 정상생리과정이며 여성의 생의 과정 모든면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 인간의 인생주기에서 볼 때 이 짧은 기간내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서[3,4] 산모와 태아 모두가 자칫 질병이나 위험에 처하기 쉬우므로 산전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임신, 분만, 산욕관리를 위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임산부 자신이 자율적으로 산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먼저 임산부를 교육할 경우 교육 목적을 설정한 후에 이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대상자 각 개인의 사회적, 교육적, 가족적 배경과 출산경험에 따라 많은 지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산부들의 임신, 분만, 산욕에 대한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여 임산부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고, 임산부 건강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산부의 임신, 분만, 산욕에 대한 지식정도와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여 간호사와 학생 간호사의 임산부를 위한 임상교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임산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 임산부의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식도 및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 요구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지식도와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 요구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1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하는 3개 종합병원, 3개 모자보건센타, 4개의 조산소에서 임신 38주~42주 사이에 정상아를 분만한 후 2일 이내의 산모 315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중 자료가 불충분한 33예를 제외한 282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1) 임신, 분만, 산욕기의 지식도 측정도구

이 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산전진찰횟수, 산전검사의 목적, 임신증상, 임부의 영양, 치아관리 등, 임신과 관련하여 임산부에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설문형식으로 구성하여 정답률을 조사하였으며, 1982년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3개 종합병원에서 산부 460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질문지[5]를 변형하여 산전지식 33문항, 분만 지식 10문항, 산욕지식 28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 측정도구

이 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중변화, 임신증상 및 관리, 분만과 관련하여 분만기전, 진통완화방법, 산욕과 관련하여 신체변화의 증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요구도를 알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척도는 "대단히 요구된다" 4점, "약간 요구된다" 3점, "별로 요구되지 않는다" 2점,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항내용은 임신기 교육요구도 13문항, 분만기 교육요구도 6문항, 산욕기 교육요구도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Reliability로 분석하였으며 임신기 교육요구도를 본 문항은 α=.9345, 분만기 교육요구도 α=.8701, 산욕기 교육요구도 α=.8830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임산부의 일반적 특성 및 지식정도는 백분율로 하고 교육 요구도는 각 문항별 점수를 합한 후 전체 문항수로 나누어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2.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도와 지식도와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와의 관계는 분산분석 검증으로 구하였다. 각 영역별 교육요구도와 지식도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 사회학적 제특성과 지식도 및 각 다른 영역의 교육요구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중 명목변수는 가변수화하여 처리하였고 서열척도로 된 변수는 그대로 사용하여 각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임산부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임산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종합병원 34.8%, 모자보건센타 33.0%, 조산소 32.2%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연령은 21~29세까지가 69.5%, 30~39세 29.4%였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15.2%, 고졸이 63.1%로 고졸이상의 학력자가 78.3%였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85.8%로 가장 높았다. 결혼기간은 5년 이내가 82.7%였고, 10년 이내 15.8%, 결과적으로 10년이내가 98.5%를 차지하고 있다. 임신과 관련된 특성으로 임신횟수는 1회 36.5%, 2회 31.9%로 2회 이내가 68.4%였다. 현 자녀수는 1명이 51.4%, 2명이 33.8%로 2명 이내가 85.2%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유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1회 10.4%, 경험이 없는 임산부가 85.8%로 나타났다. 인공유산 경험이 없는 임산부는 67.9%였고, 1회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19.0%로 나타났다. 사산의 경험이 없는 임산부는 97.3%로 나타났다.

산전진찰은 10~12회 받은 사람이 29.3%, 4~6회 22.7%, 7~9회 16.1%가 받았고, 16회 이상 받은 경우는 2.5%로 나타났다. 산전진찰 장소는 종합병원 30.0%, 의원 29.5%, 조산소 23.0% 순으로 나타났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81.2%였다.

2. 임신, 분만, 산욕기와 관련된 지식조사

1) 임신과 관련된 지식도

임신과 관련된 지식조사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상적인 산전수진 횟수에 대한 지식은 10~12회 48.8%, 13회 이상 21.8%로 정기적인 산전관리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였으며, 처음 산전 진찰 시기는 임신 3~4개월 50.4%, 임신 1~2개월 37.4%로 나타났다. 산전관리시 소변, 혈액검사의 목적에 대하여 소변검사의 목적은 합병증 발견 74.8%, 정기적 검사 17.7%이었고, 혈액검사의 목적은 필수적인 검사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혈압, 체중 측정의 목적은 임신중독증 발견이 71.3%이었다. 산전관리를 받으러 오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24.5%이었고, "병원까지 거리가 멀다"가 2위로 17.0%였다.

임신증상에 관한 지식에서도 무월경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심, 구토가 2위 68.4%, 소변자주봄 65.2%였다(복수응답). 입덧에 관하여는 "정상으로 보고 그대로 둔다" 76.2%로 알고 있었고 모른다 11.4%도 있었다. 5개월 이후의 입덧이 계속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옳게 응답한 임산부는 38.7%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임산부의 임신과 관련된 지식도

지 식 내 용	인 원	정답율(%)
이상적인 산전진찰횟수*		
13회 이상	53	21.8
산전진찰시기*		
임신 1~2개월	104	37.4
산전관리시 소변검사 목적*		
합병증 발견	211	74.8
혈액검사 목적		
필수적 검사	240	85.1
혈압/체중 측정 목적		
임신중독증 발견	201	71.3
임신증상 알고 있는 사항**		
무월경	233	82.6
오심, 구토	193	68.4
소변 자주봄	184	65.2
피부변화(유방, 얼굴)	144	51.1
복부가 커짐	135	47.9
부 종	58	20.6
입덧처리		
정상으로 보고 그대로 둔다	215	76.2
임신 5개월후 지속되는 입덧		
정상이 아니다	109	38.7
태아 성별 시기		
임신 성립시	89	31.6
임신중 영양섭취*		
평상시보다 골고루 섭취함	192	68.8
임신중 위험한 증상**		
하 혈	250	88.7
양수가 터짐	198	70.2
부 종	150	53.2
계속적인 복통	142	50.4
오한 및 발열	90	31.9
눈이 잘 안보임	89	31.6
경 련	82	29.1
계속적인 구토	80	28.4
두 통	52	18.4
임신중 주의할 사항**		
흡연 알콜	251	89.0
심한 운동	226	80.1
여 행	141	50.0
임신초기 부부관계	125	44.3
변비중	93	33.0
가사 돌보는 일	15	5.3
임신중 치아 관계		
임신후 전문의에게 문의	149	52.8

태아의 성별이 결정되는 시기에 관한 지식은 "임신 성립시"라고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31.6%, 오답이거나 모른다 68.4%로 나타났다. 임신중 위험한 증상에 관한 지식은 "하혈" 88.7%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양수가 터짐" 70.2%가 2위 였으며, 두통이 18.4%로 적게 나타났다. 임신중 주의사항은 흡연, 알콜 89.0%, 심한 운동 80.1%로 바르게 알고 있었으나, 가사돌보는 일이 위험요인으로 인식한 임산부는 5.3%로 나타났다(복수응답).

2) 분만과 관련된 지식도

분만과 관련된 임산부의 지식 및 인식조사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태아의 자세결정에 관한 지식에서 "임신후반기에 결정되며 머리가 아래로 향한다" 63.5%로 바르게 알고 있었고 임신, 분만을 통하여 호흡 및 근육운동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5%로 나타났다. 분만진통 완화법에 관한 지식에서 알고 있다가 41.5%이었으며, 그 방법은 호흡법이 대부분이며 무통분만법을 0.4%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방법을 알게 된 경로는 병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가 30.1%로 나타났다. 분만진통 완화방법중 알고 있는 것은 호흡법 31.6%, 분만진통완화 방법을 사용한 경우 32.6%로 나타났다. 분만후 복부에서 만져지는 둥글고, 딱딱한 것은 자궁이다 라고 응답한 정답률은 52.8%이었고, 그 외는 태반, 방광, 분비물이 차 있는 상태로 응답해 오답률이 47.2%로 나타났다.

표 2. 분만과 관련된 지식도

지 식 내 용	인 원	%
태아의 자세결정		
임신후반기에 결정되며 머리가		
아래로 향함	179	63.5
분만기의 호흡법		
필요하다	241	85.5
분만진통 완화법		
알고 있다	117	41.5
알고 있는 진통 완화 방법		
호흡법	89	31.6
무통 분만법	1	.4
분만후 복부에 만져지는 둥글고		
딱딱한 것은 자궁이다	149	52.8

3) 산욕기와 관련된 지식도

산욕기와 관련된 임산부의 지식조사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산욕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49.6%가 4~6주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산욕기간중 주의사항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로하면 안된다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음 및 전신이 청결해야 한다 47.9%, 출혈 47.5% 순으로 나타났다.

초유에 대한 처리는 아기에게 먹인다 63.5%, 짜버린다 28.4%로 나타났고 수유시간은 시간 맞춰 규칙적으로 먹인다 62.1%, 아기가 원할때 34.0%로 나타났다. 아기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86.5%, 홍역, 볼거리, 풍진 82.3%, B형 간염 7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산욕과 관련된 지식도

지 식 내 용	인 원	%
산욕기간		
분만 6~8주	140	49.6
산욕기간중 주의사항**		
무거운 것 들거나 과로	184	65.2
회음부위 청결	135	47.9
출 혈	134	47.5
영양섭취	98	34.8
바람쐬는 것, 목욕	91	32.3
유방출혈	61	21.6
양 치 질	48	17.0
초유처리		
아기에게 먹인다	179	63.5
짜 버린다	80	28.4
산욕기 체조		
필요하다	199	70.6
수유시간		
아기가 원할때 먹인다	96	34.0
아기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소아마비	244	86.5
홍역, 볼거리, 풍진	232	82.3
B형 간염	218	77.3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182	64.5
결핵예방 주사	171	60.6
일본뇌염	109	38.7

4)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

총 29개 임신, 분만, 산욕기의 교육요구도 항목에 대한 임산부의 반응정도는 표 4와 같다.

요구도를 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임신기 동안의 실평점은 3.13±.48이고 분만기요구는 3.22±.59, 산욕기 요구도 3.42±.47로 산욕기와 관련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기 교육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육아법" 3.60

표 4.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임신기		
육아법	3.60	.68
태아의 성장과 발육상태	3.56	.69
임신중 위험증세	3.30	.94
임신중 영양관리	3.26	.80
임신중 활동과 목욕	3.17	.80
임신중 불편감 완화방법	3.14	.81
산전운동	3.13	.73
임신시 체중증가	3.07	.80
임신중 피부 및 유방간호	3.07	.81
임신중 신체변화	2.96	.79
임신중 부부생활	2.89	.87
임신이 성립되는 기전	2.83	.90
흡연, 알콜, 약물사용	2.63	1.42
분만기		
신생아에 관한 사항	3.54	.69
담당의사와 간호사 대면	3.38	.76
진통 완화방법	3.37	.77
분만진행 과정	3.28	.87
진통분만기전	3.11	.84
분만실 위치와 구조	2.70	.98
산욕기		
신생아 응급처치	3.72	.55
아기 예방 접종시기	3.70	.56
아기의 성장과 발육	3.59	.72
아기 목욕법	3.41	.75
회음간호	3.37	.78
수유기간동안 유방손실	3.34	.74
가족계획	3.31	.85
병원에 알려야 할 이상 증상	3.26	.86
산욕기동안 신체변화	3.24	.79
산후 운동	3.22	.82

이며, "태아의 성장과 발육상태" 3.56, "임신중 위험증세" 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만기 요구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신생아에 관한 사항" 3.54이며, "분만시 담당의사와 간호사의 대면" 3.38, "진통완화방법" 3.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분만실의 위치구조" 2.70이었다. 산욕기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신생아 응급처치" 3.72로 이는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도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기예방접종시기" 3.70, "아기성장과 발육" 3.59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산후운동" 3.22이었다.

이상의 각 영역별 교육요구도의 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요구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 일반적 특성별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와의 분산분석

일반적 특성과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도가 분만장소, 교육수준, 직업, 임신횟수, 자연유산 및 인공유산 횟수, 산전관리횟수, 산전관리장소 및 분만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표 5와 같다.

1) 임신기 교육요구도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제변수중 임신기 교육요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교육수준($P<.01$), 직업($P<.05$)으로 나타났다.

2) 분만기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만기 교육요구도에 관한 분산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직업, 임신횟수 및 산전관리장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각각 $P<.05$).

3) 산욕기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욕기 교육요구도와에 관한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P<.01$), 직업($P<.05$), 산전관리장소($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임신, 분만, 산욕에 따른 교육요구도, 지식도간의 상관관계

1) 영역별 교육요구도와 지식도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임신기 교육요구도와 분만기, 산욕기 교육요구도와는 각각 서로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5028$; $P=.000$, $r=.6721$; $p=.000$, $r=5993$; $p=.000$). 이는 한 영역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임산부는 다른 영역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전관리시 대상자의 전반적인 교육요구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임신기 지식도와 분만, 산욕기 지식도와는 중등도의

표 5. 일반적인 특성별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와의 분산분석

		임신기 교육요구도			분만기 교육요구도			산욕기 교육요구도		
		평균	F	P	평균	F	P	평균	F	P
교육수준	중 졸	2.91			2.95			3.52		
	고 졸	3.15	4.813	.003	3.29	3.335	.021	3.50	3.928	.010
	대 졸	3.34			3.28			3.49		
직 업	가정주부	3.09			3.16			3.39		
	사 무 직	3.38	2.691	.048	3.57	3.360	.020	3.54	3.694	.013
	판 매 업	3.58			3.92			2.95		
	전문기술직	3.41			3.70			3.87		
임신횟수	1 회	3.22			3.29			3.50		
	2 회	3.15			3.22			3.44		
	3 회	2.89			2.98			3.30		
	4 회	2.96	1.777	.106	2.88	2.637	.018	3.29	1.059	.389
	5 회	3.02			3.46			3.26		
	6 회	3.18			3.69			3.52		
	7 회	3.15			3.42			3.30		
산전관리장소	종합병원	3.25			3.44			3.56		
	모자보건센타	3.14	1.566	.200	3.47	3.092	.029	3.57	3.993	.009
	조 산 소	3.08			3.18			3.42		
	의 원	3.03			3.06			3.26		

표 6.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 지식도와의 상관관계

	임신기 교육요구도	분만기 교육요구도	산욕기 교육요구도	임신기 지식도	분만기 지식도	산욕기 지식도	신생아예방주사에 관한 지식도
임신기 교육요구도	−	.5028 (P=.000)	.6721 (P=.000)	.140 (P=.051)	.2686 (P=.001)	.2227 (P=.005)	.1226 (P=.079)
분만기 교육요구도		−	.5993 (P=.000)	.2803 (P=.001)	.1020 (P=.120)	.1723 (P=.023)	.1576 (P=.034)
산욕기 교육요구도			−	.2294 (P=.004)	.1529 (P=.039)	.1853 (P=.016)	−.0635 (P=.233)
임신기 지식도				−	.2238 (P=.005)	.5092 (P=.000)	.4203 (P=.000)
분만기 지식도					−	.2380 (P=.003)	.2293 (P=.004)
산욕기 지식도						−	.2573 (P=.001)
신생아예방주사에 관한 지식도							−

상관관계를 나타내(r=.2233 ; P=.005, r=.5092 ; p=.000, r=.2380 ; p=.003), 산전기 지식도가 높은 임산부는 다른 영역에서도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생아 예방접종에 관한 지식도는 임신, 분만, 산욕기 지식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r=.4203 ; p=.000, r=.2293 ; p=.004, r=2573 ; p=.001).

지식도와 교육요구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임신기 지식도와 분만기 및 산욕기 교육요구도간에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r=.2803 ; p=.001, r=.2294 ; p=.004), 분만기 및 산욕기지식도와 임신기 교육요구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86 ; p=.001, r=.2227 ; p=.005).

5. 일반적 특성과 영역별 교육요구도, 지식도와의 상관관계

임산부와 일반적인 특성과 영역별 교육요구도, 지식과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도는 임산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5), 임신, 분만, 산욕기 지식도가 높을수록(P<.001)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년수와 임신횟수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결혼 년수가 짧을수록(P<.01), 임신횟수가 적을수록(P<.05) 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임신, 분만, 산욕기 지식도는 교육정도에 따라서 유의하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1),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 결혼년수와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서 나이가 적을수록, 결혼년수가 낮을수록(P<.05), 지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7. 변수별 교육요구도, 지식도와의 상관관계

변 수	임신기 분만기 교육요구도 산욕기	임신기 분만기 지식도 산욕기
연 령	-.1193(p=.115)	-.1627(p=.050)
교 육	.2526(p=.005)	.3455(p=.000)
결혼년수	-.2147(p=.015)	-.2247(p=.011)
임신횟수	-.1628(p=.050)	-.1265(p=.101)
현자녀수	-.1121(p=.130)	-.1297(p=.096)
자연유산횟수	-.1576(p=.056)	-.0517(p=.302)
인공유산횟수	.0257(p=.398)	-.0346(p=.364)
산전관리횟수	.1490(p=.067)	.0809(p=.208)
지 식 도	.3174(p=.001)	

Ⅳ. 고 찰

임신초기에 시작된 산전관리는 흔히 고위험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중 합병증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다.[2] 산전관리시 교육은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하여 교육하며[3] 임신, 분만, 산욕과정을 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교육요구와 가족내에 임신, 분만, 산욕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enest[6]는 출산준비를 시킨 결과 임산부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무력감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며 절박한 위협감 속에서도 예상되는 기대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고정된 관념인 동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동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 변화가 있게 되며, 또한 출산경험에 영향을 주어 동통지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만족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Anderson[7]은 임신 말기의 임부들에게 요구되는 분만준비 교육의 목표로 먼저 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임부의 불안을 완화시켜서 분만중의 어려움을 극소화 시키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Reeder[8]는 대부분의 임부들은 분만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중에 분만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나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과거로 부터 여성에 있어 분만은 심한 고통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Bloss, 1950) 분만기에서 알고 있는 진통완화법은 호흡법으로 31.6%가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방법을 분만중 사용하였고 효과가 좋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0.9%였다. 분만시 진통완화법으로서 호흡법의 우수성과 이를 산전교육내용으로 채택하여 그 효과가 좋았던 것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9,10,11]

출산준비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되는 라마즈(Lamaze) 출산교실의 이론적인 근거는 통증감지에 대한 Pavlov의 개념과 조건반사 이론이다.

Lamaze의 정신신경 예방법은 출산시 산부의 불안과

공포와 긴장을 해소시킴으로서 진통을 감소시키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분만중에 야기되는 진통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부에게 임신생리, 분만과정, 산전운동, 체위지도, 호흡법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 예로 임신기간의 경험에서 라마즈산전교육(Lamaze Preparation)을 받은 산부가 출산동안에 진통이 경감되었으며 보다 더 많은 희열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

Koberts(1976)도 임신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임부에게 반드시 교육시켜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특히 임신말기에는 출산에 대비하여 호흡법, 근육이완법이 포함된 교육내용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산교육이 모아관계와 가족관계강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Cronenwett & New mark(1974)는 출산에 대한 준비와 분만시 긍정적인 참여는 남편의 지각과 관계가 영향을 주어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Tanzer & Block(1976)은 출산을 준비한 부부는 자존감이 상승되고, 결혼관계가 강화되고 출산경험에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므로 전가족 관계에 정신적인 잇점을 가져다 주며 모아관계에도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다.[12)]

산욕기 지식도에서는 산욕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49.6%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산욕기간중 주의사항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로하면 안된다 65.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13)]의 연구와 일치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초유처리는 "아기에게 먹인다" 63.5%, 짜버린다 28.4%로 박[5)]의 연구와 일치하며 수유시간은 시간 맞춰 규칙적으로 먹인다 62.1%로 나타났다. 수유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칙성은 아기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므로[14)] 아기가 원할 때 먹인다는 개념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임신기 동안의 교육 요구도 실평점은 3.13±.48이고 분만기 요구도는 3.22±.59, 산욕기 요구도 3.42±.47로 산욕기동안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하[14)]의 연구와 일치한다.

각 영역별로 임신, 분만, 산욕기 동안의 교육요구도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신시 "육아법" 3.60, 분만시 "신생아에 관한 사항" 3.54, 산욕기에서는 "신생아 응급처치" 3.72로 임산부들의 교육요구도는 전기간 동안 신생아에 대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한[13)]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이는 조사시기가 분만후 퇴원하려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표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신, 분만, 산욕에 관한 교육요구도와의 관계분석에서 각 영역의 교육요구도는 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5). 이는 하[15)]의 연구보고서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불안, 공포감이 더 있다고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교육요구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P<.01$).

한 영역에서 교육요구도, 지식도가 높을수록 다른 영역에서도 요구도, 지식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6).

대상자의 특성중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1$), 결혼년수가 짧을수록($P<.05$) 지식도와의 교육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신횟수가 적을수록($P<.05$)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이가 적을수록($P<.05$) 지식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7).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중 교육정도가 임신, 분만, 산욕기 지식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지식도는 각 영역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육정도에 따른 산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경우나 초산부일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임신, 분만, 산욕기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신, 분만, 산욕기간중 임산부의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임산부를 위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1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시내 소재하는 3개 종합병원, 3개 모자보건센타, 4개 조산소에서 임신 38주~42주 사이에 정상아를 분만한 후, 2일 이내의 산부 28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Package를 이용하여 백분률,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임신, 분만, 산욕기의 지식도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임신기에는 태아성별, 결정시기 정답율 31.6%, 태아자세결정 정답률

63.5%였고, 분만기에는 분만진통완화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41.5%, 분만후 자궁복구 정답율 52.8%이었고, 산욕기에는 초유처리중 아기에게 먹인다 63.5%로 나타났다.

2.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도는 임신기 요구도의 실평점 3.133±.484이고 분만기 요구도 3.218±.589, 산욕기요구도 3.417±.471로 산욕기동안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임신기 교육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육아법" 3.60이며, 분만기 교육요구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신생아에 관한 사항" 3.54, 산욕기 교육요구도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신생아 응급처치" 3.72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분만, 산욕기 교육요구도와의 분산분석에서 임신기 교육요구도는 대상자의 교육수준(P<.01), 직업(P<.05)에 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분만기 교육요구도는 교육수준, 직업, 임신횟수, 산전관리장소에 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산욕기 교육요구도는 교육수준(P<.01), 직업(P<.05), 산전관리장소(P<.0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임신, 분만, 산욕에 따른 교육요구도와 지식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한 영역에서 교육요구도는 지식도가 높을수록 다른 영역의 교육요구도, 지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중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5), 각 영역의 지식도가 높을수록(P<.001), 결혼년수가 짧을수록(P<.01), 임신횟수가 적을수록(P<.05)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신, 분만, 산욕기 지식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1), 결혼년수가 짧을수록(P<.01), 나이가 적을수록(P<.05), 지식도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산전관리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교육요구도에 따라 구체적인 산전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초산부일수록 결혼년수가 짧을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임신, 분만, 산욕기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2. 임산부에게 산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많이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Kathle L. N, Carolyn R. B, Allan Charles : Explaining pain and Enjoyment in childbir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 : 260~275, 1977.
2. 하영수, 이경혜 : 모성 및 부인과 간호학, 232~233면, 신광출판사, 서울, 1991.
3. 최연순, 조희숙, 장춘자 ; 모성간호학, 108~109면, 수문사, 서울, 1991.
4. Eileen Degarmo, Karen Davision : Psychosocial Effects of Pregnancy on the mother, Father, Marriage a family, In Current practice in obstetric & Gynecologic nursing, Vol. 2 : pp. 24~44, Mosby, 1978.
5. 박춘화 : 산부의 산전 및 산욕기 지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의사회지, 18(8) : 23~34, 1982.
6. Myles Genest : Preparation for childbirth Evidence for Efficacy JOGN Nursing, 3(4) : 82~85, 1981.
7. Anderson J. : A clarification of the Lamaze method, JOGN Nursing, 6(2) : 53~54, 1977.
8. Fitzpatric E. : Reeder S. R, Mastroainni L., Maternity Nursing, 13th ed, pp. 191~205, philadelphia, Lippincott company, 1976.
9. 박영숙, 한경자 : 산전 Lamaze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15(2) : 16~25, 1985.
10. 최연순 : 산전교육이 분만진통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대박사 학위논문, 1989.
11. 한혜실 : 분만시 호흡조절과 산부의 불안 및 진통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학위논문, 1988.
12. Mary E. Dooher : Lamaze method of Childbirth, NR, 294 : 220~224, 1980.
13. 한혜실 : 임산부의 교육적 요구도에 관한 연구, 예수간호전문대학 논문집, 6(1) : 49~70, 1960.
14. 하영수 : 산소아과 간호학, 147~148, 수문사, 1975.
15. 하영수 : 한국초임부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1(4) : 315~325, 1968.
16. Bobak, Jenson : Essential of Maternity Nursing, pp. 344~357, Mosby, 1984.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Needs of Pregnant Women

Choon Hwa Park MPH, Byung Sung Kim M. D., MPH, Hyung Jong Park M. D., Ph. D., Hae Lim Shin, Kong Hyu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o the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of pregnant women relating to antepartum, delivery, postpartum periods,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d their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The study subjects were 282 postpartum women who had delivered fullterm normal babies without any complica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women those who were not more than two days after delivery at general hospitals, 3 maternal child health care centers and 4 midwife's offices in Pusan using questionnaire method from Feb. 1. 1991 to Mar. 20. 199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lating to the antepartum period, the knowledge about the time when the sex of fetus was fixed was low, and relating to delivery, the knowledge about the method reducing labor pain was low.

2. Relating to the antepartum period, the educational needs about child rearing was high, and relating to delivery, the educational needs about newborn baby were high. Relating to the postpartum period, the educational needs about emergency care of new born baby were high.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educational needs by educational level($P<.01$), duration of marriage($P<.01$), and number of pregnancy($P<.05$).

4.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knowledge and educational level and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otal knowledge and duration of marriage and age.